

시는 춤이 되고 춤은 시가 된다



창립 24주년을 맞은 동국예술기획의 제77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2010년 6월 27일 공옥진 여사의 마지막 공연에서 박동국 대표(사진 왼쪽)와 공옥진 여사의 공연장면.

동국예술기획 '한국의 명인명무전'

시와 한국춤이 만나 새로운 무대를 펼친다. 창립 24주년을 맞은 동국예술기획의 제77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진다.

승무, 바라춤, 소고춤, 이매방류살풀이춤, 진도북춤 등 우리나라 전통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번 공연의 특징은 시낭송

22편의 시낭송과 춤 어우러져

5월 9·10일 국립국악원서

이 결합돼 새로움을 더한다. 이에 '시와 한국춤이 만나 춤을 추다'라는 부제 아래 공연 이들 동안 총 22편의 시가 관객들에게 전해진다.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는 "2009년 20주년 기념공연 전에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시낭송과 함께 춤꾼이 나와 춤을 췄는데 관객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 그때 이를 공연으로 만들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공연의 발단이 되었다

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27일 공옥진 여사의 마지막 공연에서 박 대표가 무대에 올라가게 되고 지병으로 힘이 소진돼 버린 공 옥사는 박 대표의 팔을 잡고 함께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박 대표는 "이 광경을 본 시인 명기환 선생님이 자신도 시로 춤을 한번 춰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고 이번 무대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지게 되었다. 명 선생님께서 이번 무대를 위해 21편 춤의 시를 만들어주셨다. 무희들이 춤을 추기 전에 시들을 여류 시낭송가들이 낭송하고 이후 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방식의 공연을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한편, 동국예술기획의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1990년 서울에서 첫 무대를 연 뒤 24년 만에 제77회 공연 기록을 세웠다.

동국예술기획은 5월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10월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이어 11월 거제(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77회 서울 국립국악원 공연은 5월 9일~10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다. (031)902-2942 정혜숙 기자

선·자연·일상... 이철수 판화의 모든 것

광주시립미술관 '아이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이철수 목판화 32년을 결산하는 '아이들 뒤따라 올 텐데'전을 5월 5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32년 동안 작업한 대표작품들이 전시돼, 이철수 목판화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초기작품인 1981년의 투쟁적 민중미술의 목판화부터 최근에 일상에서의 평화와 존재를 나누고자 하는 선(線)적인 목판화까지 총 12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밥이, 하늘입니다'는 밥그릇 안에 삼라만상의 우주를 담은 듯하고 '좌탈, 바라꽃이



이철수의 '좌탈, 바라꽃이다'

다'는 길 떠나기를 결심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062)613-7150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취두(鷲頭)→용미(龍尾)

건축에 담긴 영기화생 사상 '용마루'로 극대화



그림①



그림②



제1영기씩

면으로 된 제1영기씩

다시 赤線덧붙여서 입체적으로 표현 이것이 바로 월지 출토 용마가 된다.

그림③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취두(鷲頭)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각이나 문루 따위의 용마루 양쪽에 댄 장식'. 다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앞 서 다른 치미(鷲尾)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각이나 문루 등 전통 건물의 용마루 양쪽 끝머리에 얹는 기와'. 그런데 용미(龍尾)를 찾아보면 그런 건축과 관련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같은 조형을 두고 다른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으면서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일까. 솔개꼬리와 독수리머리는 같은가? 그리고 용의 꼬리라고 증거를 대도 아무 감각이 없는가? 국어사전이라고 모두 믿을 수 없다.

솔개꼬리와 독수리 머리가 같다?

취두, 즉 독수리 머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왜 그 부분을 독수리꼬리라면 몰라도 독수리 머리라고 보았을까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알 수 없었다.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다면서 웃을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월지(月池: 안암지)에서 출토된 용미를 보고 무릎을 쳤다.(그림①) 연세대 박물관에서 독수리 박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리가 용미의 꼬리, 즉 제1영기씩의 조형과 같다는 것을 문득 떠올렸다. 그 박물관을 다시 찾아 살펴보며 사진을 찍었다. 언젠가 취두라는 용어에 대하여 쓸 때 자료로 쓰리라 생각했다.(그림②)

제1영기씩이 용의 꼬리가 되는데, 물론 제2영기씩이나 제3영기씩을 꼬리로 삼을 수 있다. 그 모두가 만물생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영기씩의 조형은 면(面)으로, 그리고 입체로 성립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하여 나간다.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기로 한다.(그림③) 여러분은 처음 보는 것이므로 무엇인지 모를 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무엇인지 모를 형태들을 알게 됨에 따라 제1영기씩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력이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양 삼국은 건축 양식이 기본적으로 같은데 건축에서 가장 맨 위 부분을 '용마루'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용마루 중앙에 보주(寶珠)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용마루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림④

한국의 건축은 영기화생(靈氣化生: 영기문에서 만물이 화생한다는 필자의 이론)의 전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중국에서도 용마루를 용의 입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개념은 있었음을 건축양식에서 알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의 건물에서는 양 끝에 용의 형상을 두고 용의 입에서 무량보주와 덩굴모양 영기문이 엮겨져 나와서 용마루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용마루가 건축에서 얼마나 상징이 큰 부분인가를 웅변하는 것이다.(그림④)

무량보주를 칠보문(七寶文)이라 불렀으니 일본의 악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다. 흔히 용의 입에서 보주가 하나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미술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보주 '하나'가 나온다고 말한다. 하나가 아니라 무량한 보주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보다 더 용마루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의 예를 보아 독수리 머리를 가

리키는 취두란 용어는 얼마나 허방한 용어인가.

중국에서 용마루는 '용의 등골'

그런데 중국에서는 용마루를 무엇이라 부르지는 알아 보니 옥척(屋脊), 정척(正脊), 주척(主脊)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내림마루는 수척(垂脊)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옥척은 통칭인 셈이다.

척(脊)이란 등골뼈인데 이에 따라 산마루를 산척(山脊), 즉 우리말로 등성마루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의 '용마루'란 용어가 얼마나 멋진 말인가. 용마루를 중국어로 바꾸면 용척(龍脊)이 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용의 척추가 될 것이니까.

이 연재는 우리나라 문화를 바로잡는 첫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국문화 바로잡기'에 동참하여 하나의 운동으로 삼기를 기원한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3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영혼체 윤회론

[158쪽 10,000원]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관음태교

[227쪽 10,000원]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영산불교 새천수경

[131쪽 7,000원]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저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 무료배포]

현지사 천도재 안내